

『金匱要略』注釋書에 나타난 腎氣丸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兼任教授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李正泰* · 金容辰**

對『金匱要略』及其注釋書中所出現的腎氣丸之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兼任教授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李正泰* · 金容辰**

本研究以目前臨床應用較廣, 且具有八味地黃丸、金匱八味丸等多種名稱的腎氣丸進行了文獻研究. 具體研究方法, 則採取了對最早提及腎氣丸的『金匱要略』及其多種注釋書進行綜合分析的方式來予進行.

通過本研究, 得知在『金匱要略』中首次提及處方名和藥物組成時所採用的處方名乃是腎氣丸, 故認為較之八味丸或八味腎氣丸之名稱, 當以腎氣丸為最早、最正統的處方名稱. 另外, 腎氣丸所具有的功效, 可用於主治因腎氣虛衰所致的轉胞不得溺、虛勞腰痛、少腹拘急而小便不利、短氣有微飲、消渴而小便反多以及腳氣上入而少腹不仁等病證.

認為以此研究為基礎, 今後有必要進一步對漢代以後至現在應用腎氣丸的文獻資料進行搜集整理, 並按不同時代劃分去研究腎氣丸的臨床運用情況及其功效, 以不斷提高臨床活用價值.

Key Words : 『金匱要略』, 注釋書, 腎氣丸, 腎氣虛衰.

I. 緒 論

腎氣丸은 東漢時代 張仲景의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方劑로 八味腎氣丸과 崔氏八味丸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났다. 乾地黃八兩, 山茱萸四兩, 山藥四兩, 澤瀉三兩, 牡丹皮三兩, 茯苓三兩, 桂枝一兩, 炮附子一兩으로 이루어졌고, 轉胞不得溺,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短氣有微飲, 消渴 小便反多, 腳氣上入 少腹不仁 등을 主治한다고 하였다¹⁾²⁾³⁾.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42-280-2626. E-mail: king@dju.kr

접수일(2010년 12월10일), 수정일(2011년 1월11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12일)

- 1) 李克光 主編,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50, 167, 332, 368.
- 2)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88, 105, 207, 235, 414.
- 3) 李克光, 張家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

腎氣丸은 腎을 補하는 處方으로 歷代 醫家들이 지속적으로 發展시켜 다양한 補腎方으로 演變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臨床에서 폭넓게 應用되어 왔다⁴⁾.

그 중 代表의인 것을 살펴보면, 宋·陳師文 등이 編撰한 『太平惠民和劑局方·治諸虛』는 『金匱要略』 腎氣丸의 桂枝를 肉桂로, 乾地黃을 熟地黃으로 바꾸고, 溫補腎氣의 機能을 強化하기 위해 肉桂와 炮附子의 用量을 增加한 후 八味丸이라고 불렀으며, “八味丸, 治腎氣虛乏, 下元冷慄, 臍腹疼痛, 夜多漩溺, 腳膝緩弱, 肢體倦怠, 面色黧黑, 不思飲食, 又治腳氣上沖, 少腹不仁, 及虛勞不足, 渴欲飲水, 腰重疼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或男子消渴, 小便反多, 婦人轉胞, 小便不通, 並宜服之.”⁵⁾ 라고 하여 主治病證의 範圍도 많이 擴대한 바 있다.

出版社. 1993. p.140, 160, 336, 388, 684.

- 4) 管華全, 樊巧玲. 淺述腎氣丸的衍化. 遼寧中醫學院學報. 2003. 5(1), p.47.

- 5) 劉景源 點校, 宋·陳師文 등 撰.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159.

後世에 와서 金匱腎氣丸, 桂附地黄丸, 八味地黄丸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 南宋·嚴用和의 『嚴氏濟生方·水腫門』에는 金匱腎氣丸에 牛膝과 車前子를 追加하여 “腎虛腰重脚重小便不利”⁶⁾ 등 病證을 治療하는데 使用되었는데, 後世에 와서 加味腎氣丸, 濟生腎氣丸, 牛車腎氣丸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宋·錢乙의 『小兒藥證直訣·諸方』에서는 腎氣丸에서 桂枝와 炮附子를 뺀 地黄丸을 創製하여 小兒腎虛로 인한 腎怯失音, 凶關不合, 神不足, 目中白睛多, 面色皸白 등 病證을 治療하였는데⁷⁾, 以後에는 腎陰虛證에 속한 內·外·婦·兒·五官·皮膚 등 各科의 雜病에 널리 應用되어 왔다. 後世에 와서 이 地黄丸이 六味地黄丸 또는 錢氏六味丸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대 韓醫學에서도 腎氣丸과 그 演變方인 八味丸이나 濟生腎氣丸 등은 臨床 各科의 여러 病證의 治療에 널리 應用되고 있는 편인데, 主로 腎臟疾患, 高血壓症, 動脈硬化症, 糖尿病, 尿崩症, 腰痛, 神經衰弱, 性機能障礙, 不妊症, 眼疾患 등을 瘼을 수가 있다⁸⁾.

이와 같이 古今에 걸쳐 臨床活用の 價値가 큰 腎氣丸과 그 演變 處方들은 研究의 價値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다.

『難經本義·自序』에 “夫天下之事는 循其故則其道立하고 浚其源則其流長하니 本其義而不得其旨가 未之有也라”⁹⁾고 하였듯이 根源이 되는 것을 研究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思想으로 腎氣丸에 대하여 原典인 『金匱要略』과 그 注釋書들을 中心으로 研究하여 얻은 內容을 報告하고자 한다.

6) 宋·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7) 金達鎬 譯, 宋·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2002. pp.110~111.
8) 오로사, 金永學, 宋峰根, 李彥政. 八味地黄丸과 六味地黄丸의 效能에 關한 文獻의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pp.12~17.
9)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10.

II. 本 論

본 연구에 使用된 『金匱要略』의 注釋書들은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에서 引用된 部分을 再引用하면서 名稱을 아래 圖表의 略語로 使用하였다.

본 研究에 使用된 參考文獻과 學位論文은 아래 圖表와 같다.

표 1. 研究에 引用된 參考文獻

著者	註釋書	出版社	簡稱
徐彬	金匱要略論注	圖書出版鼎談	『論注』
李紘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廣注』
張志聰	金匱要略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張注』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華夏出版社	『二注』
沈明宗	金匱要略編注	中國中醫藥出版社	『編注』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本義』
尤怡	金匱要略心典	華夏出版社	『心典』
吳謙	醫宗金鑑·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金鑑』
黃元御	金匱懸解	人民衛生出版社	『懸解』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人民衛生出版社	『淺注』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文光圖書有限公司	『高注』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人民衛生出版社	『輯義』
丹波元胤	金匱玉函要略述義	人民衛生出版社	『述義』
朱光被	金匱要略正義	浙江科學技術出版社	『正義』
葉霖	金匱要略闕疑	浙江科學技術出版社	『闕疑』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中國中醫藥出版社	『補正』
曹家達	金匱發微	浙江科學技術出版社	『發微』
嚴鴻志	金匱廣義	浙江科學技術出版社	『廣義』
范式則	金匱辨解	浙江科學技術出版社	『辨解』

표 2. 研究에 引用된 韓醫學碩士學位論文

著者	題目	發表
王學淦	『金匱要略·血痺虛勞病別證并治』에 대한 研究	2004
尹英珉	『金匱要略·中風歷節病別證并治』에 관한 研究	2004
金珠哲	『金匱要略·婦人雜病別證并治』에 관한 研究	2005
柳濟求	『金匱要略·痰飲咳嗽病別證并治』에 관한 研究	2005
河成龍	『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2005

1. 腎氣丸에 대하여

(1) 腎氣丸과 同一處方으로 알려진 崔氏八味丸에 관하여¹⁰⁾

腎氣丸은 張仲景이 『金匱要略』에서 最初로 提示한 方劑로서,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 「痰飲咳嗽病脈証並治第十二」,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第十三」,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 등 총 다섯 篇에서 言及되고 있다. 다만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에는 八味腎氣丸으로 나오고,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는 腎氣丸이 아닌 崔氏八味丸으로 나오는데 藥物의 構成과 用量이 腎氣丸과 一致하므로 동일 處方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張仲景의 醫書에 崔氏八味丸이라고 하는 崔氏의 方劑가 나타난 것인지 甚히 疑惑스러운 問題이다.

이 問題에 관하여 丹波元簡은 『輯義』에서 “案外台 腳氣不隨門하고 載崔氏方이 凡五條라 第四條云 若 腳氣上入少腹하여 少腹不仁하면 卽服張仲景八味丸이라 方用澤瀉四兩 附子二兩 桂枝三兩 山茱萸五兩 餘并同於本書라 舊唐經籍志에 崔氏纂要方十卷 崔知悌撰이라 하고 新唐藝文志에 崔行功撰이라하여 所謂崔氏는 其人也라 不知者는 或以爲仲景收錄崔氏之方故로 詳及之라”¹¹⁾고 하였다. 즉 唐代의 醫家인 崔知悌가 『崔氏纂要方十卷』을 著述하였고, 이후 唐·王燾가 다시 自身の 著書인 『外臺秘要』의 「腳氣不隨門」에 崔氏의 處方 다섯 개를 收錄하였는데, 그 중 네 번째 처방이 바로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 나오는 崔氏八味丸으로, 이 崔氏 處方의 本來 由來는 다름 아닌 張仲景의 八味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八味丸은 곧 腎氣丸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唐·王燾의 『外臺秘要十八卷·腳氣上門·腳氣不隨方五首』의 原文을 살펴보면, 王燾가 收錄한 崔氏의 다섯 개 處方은 각각 “崔氏側子酒療腳氣不隨方”, “又煮散方”, “又小飲子法(用煮前散)”, “又若腳氣上入

少腹, 少腹不仁, 卽服張仲景八味丸方”, “又腳氣雖差, 至冬季間, 常須服側子酒方”인데, 네 번째 處方에 대하여 “又若腳氣上入少腹, 少腹不仁, 卽服張仲景八味丸方. 乾地黃八兩, 澤瀉四兩, 附子二兩炮, 薯蕷四兩, 茯苓三兩, 桂心三兩, 牡丹三兩去心, 山茱萸五兩. 右八味, 搗篩, 蜜和爲丸如梧子, 酒服二十丸, 漸加至三十丸. 仍灸三裏, 絕骨. 若腳數轉筋, 灸承山. 若腳脛內稍不仁, 灸三陰交. 忌豬肉, 冷水, 生蔥, 醋物, 蕪荑.”¹²⁾라고 하여, 이 네 번째 處方이 崔氏의 책에서 收錄한 것이지만 本來 張仲景의 處方임을 分明히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崔氏 處方은 이미 사라진 崔知悌의 『崔氏纂要方十卷』에서 由來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崔氏八味丸의 主治病證에 대하여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는 “腳氣上入少腹 少腹不仁”의 腳氣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外臺秘要』卷十八에 “蘇長史論曰: 腳氣之爲病은 本因腎虛하고 多中肥溢肌膚者는 無問男女라 若瘦而勞苦하고 肌膚薄實하며 皮膚厚緊者는 縱患亦無死憂라 一差已後에 又不可久立蒸濕等地하고 多飲酒食嘔하며 心情憂憤하면 亦使發動이라 晉宋以前에 名爲緩風이오 古來無腳氣名이라 後以病從腳起하고 初發因腫滿이라 故名腳氣也라”¹³⁾고 하여 옛적에는 腳氣라는 病名이 없었다고 하였고, 또 丹波元簡은 『輯義』에서 “案千金論腳氣云 魏周之代에는 蓋無此疾이니 所以姚公集驗殊不殷勤이라 徐王撰錄에는 未以爲意이오 外台蘇長史에 云 晉宋以前에 名爲緩風이라 古來無腳氣名이니 由此觀之면 此方亦是宋以前人所附오 非仲景原方明矣라”¹⁴⁾고 하여 腳氣라는 病症은 永嘉(307年) 이후에 나타났고 腳氣라는 病名은 隋唐 이후에야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에 나오는 腳氣衝心을 主治하는 礬石湯이나 附方에 나오는 “腳氣上入少腹 少腹不仁”을 主治하는 崔氏八味丸은 모두 뒷사람들이 校訂할 때 添附한 것임이 分明하다¹⁵⁾¹⁶⁾.

10) 尹英珉,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4. pp.76~88.(原文과 관련된 參考文獻은 尹英珉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11)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8.

12) 唐·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499~500.

13) 唐·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91.

14)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

15)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86.

또한 張仲景이 자기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崔知悌의 姓氏를 딴 崔氏八味丸이라는 處方名을 自身の 著書에 記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 나타난 崔氏八味丸條目은 결코 張仲景이 著述한 『金匱要略』의 原文內容이라고는 認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2) 腎氣丸의 由來

腎氣丸의 處方名과 藥物構成이 『金匱要略』에서 처음 나타난 篇章에 대하여 版本의 差異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說이 있다.

첫째는 「醫統」本을 底本으로 삼은 것으로,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 最初로 處方名과 藥物構成을 提示하고, 腎氣丸이 나오는 기타 篇章의 條目 뒤에는 “方見婦人雜病中”이라고 尾注를 標記한 것인데, 『金匱要略淺述』¹⁷⁾이 여기에 該當된다.

둘째는 宋·林億 등이 詮次하고 明·趙開美가 校刻한 『金匱要略方論』을 底本으로 삼은 것으로,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 가장 먼저 崔氏八味丸이라는 處方名으로 藥物構成을 提示하고, 腎氣丸이 나오는 기타 篇章의 條目 뒤에는 “方見腳氣中”이라고 尾注를 標記한 것인데, 『譯釋』¹⁸⁾이 여기에 該當된다.

셋째는 宋·林億 등이 詮次하고 明·趙開美가 校刻한 『金匱要略方論』을 底本으로 삼으면서 「醫統」本の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 나오는 腎氣丸의 藥物構成을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으로 옮기고,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의 腎氣丸이 나오는 條目 뒤에는 “方見虛勞中”이라고 尾注를 標記한 것인데, 『廣注』¹⁹⁾,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金匱要略』²⁰⁾, 『胡庚辰評注·金匱要略』²¹⁾,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²²⁾가

이에 該當된다.

이 외에도 『金匱要略』徐注本에는 腎氣丸이 나오는 條目 뒤에 “方見腳氣中”이라 하지 않고 “方見中風中”이라고 尾注를 달기도 하였다²³⁾.

이상을 總括하면 『金匱要略』에서 腎氣丸의 名稱과 處方 構成은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第19條目の 腎氣丸과 그 藥物構成으로 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腎氣丸 處方名의 命名意義

腎氣丸에서 腎氣의 意義에 대하여 黃元御는 『懸解』에서 “水中之火旺하여 藏於少陰이 是謂腎氣라”고 하여 腎水 중의 眞火가 少陰腎臟과 少陰腎經에 旺盛하게 貯藏되어 있는 것이 正常的인 生理狀態인데, 腎氣丸에서 뜻하는 腎氣가 바로 이 水中之火라고 하였다. 또 “腎氣溫暖하여 木榮風靜 則癸水善藏而木不能泄이오 腎氣漸寒하여 木鬱風作 則乙木善泄而水不能藏이라”고 하여 腎은 主墊藏하고 肝은 主疏泄하니 이 腎氣의 旺盛과 虛損은 肝木의 疎泄機能에 影響을 미쳐 精水 및 小便의 藏泄의 正常與否를 決定하게 된다고 하였다.

李炆은 『廣注』에서 “方名腎氣丸者는 氣屬陽하여 補腎中眞陽之氣라”고 하여 腎氣를 腎中の 眞陽之氣로 보았고, 또 “內具六味丸壯腎水하여 以資小便之源하고 桂附益命門火하여 以化膀胱之氣하니 則薰蒸津液하여 水道以通而小便自利라”고 하여 이 眞陽之氣는 壯腎水하고 益命火하는 方法을 通하여 補해지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尤怡는 『心典』에서 “蓋水液屬陰이니 非氣不至하고 氣雖屬陽이나 中實含水하니 水之與氣는 未嘗相離也라 腎氣丸은 中有桂附하니 所以斡旋腎中頽墮之氣하여 而使上行心肺之分 故로 名曰腎氣라”고 하여 腎中에 氣가 貯藏되어 腎氣라고 하는데, 이 氣는 陽에 屬하나 그 속에 水를 품고 있어 그 水와 그 氣는 一體가

16) 李克光, 張家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37.

17)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5, pp.413~414.

18) 李克光, 張家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60, 684.

19) 李炆.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55~56, p.200.

20) 李克光 主編.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67, 618.

21)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124, p.456.

22) 丁光迪, 張毅才, 曹鍾鈺.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90, 569.

23)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5.

되어 떨어지지 않는 特徵이 있다고 하였고, 또 “腎氣丸은 中有桂附하니 所以斡旋腎中頽墮之氣야야 而使上行心肺之分 故로 名曰腎氣라”고 하여 腎氣丸은 桂枝와 附子 등 藥物들을 이용해 바로 이 腎中の 損傷된 氣를 살려서 위의 心肺로 上昇케 하는 效能이 있기에 이름하여 腎氣丸이라고 하었다고 說明하였다. 또 나아가서 “夫豈知飲入於胃에 非得腎中眞陽이면 焉能遊溢精氣야야 而上輸脾肺耶아”라고 하여 이 腎氣가 바로 腎中の 眞陽之氣라고 言及하기도 하였다.

唐宗海는 『補正』에서 “蓋火交於水면 卽化爲氣니 命門之火가 在下蒸水上騰爲氣야야 氣著於物卽復化爲水며 氣在上焦則爲津液하고 有津液則不渴矣라 氣之生於水中에 有如西法以火熬水而取氣는 其理一也라”고 하여 위에서 尤恰가 말한 氣는 바로 다름아닌 命門之火가 腎水에 作用하여 化生한 氣라고 한 층 더 깊은 解釋을 하였고, 또 “腎氣丸은 於水中補火하니 正是化氣之法 故로 名曰腎氣니 知此氣化면 則知補腎止渴諸理矣라”하여 腎氣丸이 腎水안에 火를 補함으로써 氣를 化生시키는 處方이기에 이를 腎氣丸으로 命名한 것이라고 明快하게 解釋해 주었다.

그리고 吳謙은 『金鑑』에서 “腎氣丸은 納桂附於滋陰劑中十倍之一야야 意不在補火 而在微微生火하니 卽生腎氣也라 故不曰溫腎하고 而名腎氣라”고 하여 唐宗海가 言及한 “水中補火 化生腎氣”하는 腎氣丸의 作用을 보다 生動感있고 明白한 言語로 그 微妙한 要旨를 밝혀 주었다. 즉 滋陰하는 藥物을 大量으로 쓰고 溫熱의 藥性을 가진 桂枝와 附子를 滋陰藥의 10분의 1만 쓰는 것이 火를 補하기 위함이 아닌 眞火를 은근히 生하게 하는 理致로서, 이것이야말로 腎氣를 生하게 하는 가장 效果의인 方法이라는 것이다. 그런 緣故로 이 處方을 溫腎丸이라 하지 않고 腎氣丸이라고 命名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綜合하면, 腎氣丸은 陰陽兩補의 方劑로 滋陰을 爲主로 하되 陰陽互根의 原理에 따라 滋陰補腎하고 振奮陽氣하며 充實腎氣하는 效果를 이루게 되는 陰中求和의 處方으로, 單純한 壯陽補腎劑와는 다르기에 處方 이름을 溫腎丸이나 腎陽丸이라 하지 않고 腎氣丸이라고 命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3. 『金匱要略』 腎氣丸의 主治病證과 應用

위에서 考察하였듯이 腎氣丸의 處方名과 藥物의 構成 및 用量을 처음 提示한 것이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이 아니고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이다. 그리고 「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附方」에 나오는 崔氏八味丸條目은 後人들이 添附한 것이고, 또한 內容도 簡略하여 다만 脚氣病의 한 가지 狀況에 대한 腎氣丸의 應用을 言及한 것이므로 이번 研究에는 省略하기로 한다.

따라서 本文에서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를 첫 始作으로 하고 다음에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 「痰飲咳嗽病脈證並治第十二」,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第十三」의 順으로 腎氣丸의 主治病證과 應用 心法에 대하여 注釋書 中心으로 考察해보기로 한다.

1)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²⁴⁾

(1) 原文

問曰 婦人病 飲食如故하고 煩熱不得臥 而反倚息者는 何也오 師曰 此名轉胞오 不得溺也라 以胞系了戾야야 故致此病하니 但利小便則愈니 宜腎氣丸主之라 (第19條)

(原文解釋)

문제를 婦人病에 飲食의 異常은 보이지 않고 煩熱하여 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呼吸도 困難하여 倚息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답하기를 이는 轉胞(胞轉이라고도 부르는데 胞는 膀胱을 가리키고 轉은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膀胱이 屈闕不舒하여 小便不通하게 되는 病症을 말한다.²⁵⁾)라는 病症으로 小便을 보지 못하는 證狀이다. 胞系가 了戾하여 이러한 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다만 小便을 보게 되면 낫는 것이니 이때는 마땅히 腎氣丸으로 治療하여야 한다.

腎氣丸方：

乾地黃八兩 薯蕷四兩 山茱萸四兩 澤瀉三兩 茯苓三兩 牡丹皮三兩 桂枝 附子炮各一兩.

24) 金珠哲,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117~122.(原文과 관련된 參考文獻은 金珠哲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25) 丁光迪, 張毅才, 曹鍾苓.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69.

右八味末之, 煉蜜和丸, 梧子大, 酒下十五丸, 加至二十五丸, 日再服.

(2) 病症의 病因病機에 대한 各家注 考察

張仲景은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에서 腎氣丸의 處方構成과 각 藥物의 用量을 提示하면서 婦人科 雜病治療의 重要한 治療方劑로 삼았다.

① 飲食如故의 發生機轉

本 條目에서 처음 言及한 飲食如故에 대한 各家의 注釋을 살펴보면 대개 一致한 편인데, 臨床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辨證意義에 관하여 『金鑑』은 “病不在胃 하니 故飲食如故也라”고 하였고, 『懸解』, 『淺注』, 『辨解』 등도 똑같은 解釋을 하였다. 『張注』는 “病飲食如故者는 病在上下而不涉於中焦也니라”고 解釋하였고, 『高注』는 “飲食如故 故로 知上中二焦 及前行之後天氣道中無病이오 而爲先天之腎氣虛微로 因致胸中失傳送之候也니라”고 하였으며, 『心典』은 “飲食如故 하니 病不由中焦也니라”고 하였고, 『正義』는 “飲食如故 하니 上中兩焦無病矣니라”고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注釋家들은 脾胃 또는 中焦에 病이 없으므로 飲食如故한다고 하였다.

② 煩熱不得臥 而反倚息의 發生機轉

또 煩熱不得臥 而反倚息의 症狀의 辨證 意義에 관한 여러 注家들의 注釋을 살펴보면, 『金鑑』은 “陽氣不化 하니 故煩熱也니라 水不得下行하니 故倚息不得臥也니라”고 하였고, 『辨解』는 “陽氣不化하니 故煩熱이라 水不得下行하니 則倚息不得臥也니라”고 하였으며, 『淺注』는 “煩熱者는 陽氣不化也니라 倚息不得臥者는 水不得下行也니라”고 하여 煩熱은 陽氣不化에서 비롯된 것이고 倚息不得臥는 水不得下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모두 같은 意見을 提示하고 있다.

『張注』는 “君火在上하면 不得下焦之陰氣以和之하니 故煩熱不得臥 上下之經氣不通하니 故敬倚而息也니라”고 하여 君火와 腎陰의 不調로 煩熱不得臥가 나타나고, 몸의 上部와 下部의 經氣가 서로 막혀 通하지 않아 倚息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고, 『心典』은 “下氣上逆 而倚息하고 上氣不能下通 而煩熱不得臥라”고 하여 下焦의 水氣가 逆上하여 倚息이 나타나고,

上焦의 氣가 下焦와 相通하지 못하기에 煩熱不得臥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懸解』는 “水溺不行하고 濁氣莫泄하고 肺氣逆升하여 鬱而生熱하니 故煩熱倚息 不得眠臥라”고 하여 小便不利로 水濕의 濁氣가 果積되어 肺氣가 逆上하여 鬱滯됨으로써 熱이 생겨나기에 煩熱倚息과 不得眠臥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正義』는 “轉胞로 以不得溺하니 故로 氣逆而煩熱喘急也니라”고 하여 膀胱 胞系가 잘못 돌아가 小便이 通하지 않게 된 것이 氣逆, 煩熱, 喘急의 發生機轉이라고 하였고, 『高注』는 “今腎中鮮上熏之妙 而 膈氣空淺하면 則水行自緩하고 緩則氣愈滯而不得溺니라 不得溺하면 則膀胱滿而攙起胞胎하니라 令胞系松寬而微轉하니 故曰轉胞라 夫膀胱之氣와 與胞胎之氣가 兩皆上轉하면 則氣字扁窄하여 其煩熱不得臥하고 及倚坐以息也가 宜矣니라 … 爲先天之腎氣虛微라 因致胸中失傳送之候也니라”고 하여 妊娠의 경우를 特別히 指定하여 말하면서 胞胎之氣와 膀胱之氣가 함께 위로 몰려 氣機升降의 空間이 좁아져서 諸症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그 根本의 病因이 先天之本이 되는 腎氣의 虛弱함에 있다고 하였다.

③ 轉胞 不得溺의 發生機轉

本 條目的 諸病症의 核心이 되는 轉胞 不得溺의 病因病機에 관하여 『張注』는 “此는 下焦水火之氣不交也라 了戾者는 陰陽相交之關戾이니 胞轉系於其間 而不得火熱之氣化하니 故不得溺也니라”고 하였고, 『金鑑』은 “病不在胃하니 故飲食如故也라 病在於胞하니 故不得尿也니라 陽氣不化하니 故煩熱也니라 水不得下行하니 故倚息不得臥也니라 名曰轉胞니 以胞系乖戾不爽也라 故致此病이라”고 하였으며, 또 “『集注』 趙良曰 蓋因腎虛用之也니 用此補腎則氣化하고 氣化則水行而愈矣니라”하여 本篇에 나오는 轉胞之病이 下焦腎虛 氣不化出로 因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懸解』는 “此緣土濕水寒 而木氣鬱燥하여 不能疏泄也니라 濕寒結滯 溺孔凝澀不開 胞滿而不出하면 則氣鼓而系轉이라”고 하였고, 『淺注』는 “胞轉則不得溺也면 治以此方으로 補腎則氣化하고 氣化則水行而愈矣니라”고 하여 腎氣不化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高注』는 “此條는 明言不得溺爲本病이니 因而轉胞라 又因轉胞而致煩熱不臥하야 以及倚息이라”하여 不得溺로 인하여 轉胞가 이어서 發生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였고, 또 나아가서 “蓋腎中先天之氣는 從貼脊之後道하야 上熏膈中하나라 與飲食所生之悍氣는 從肺而上貯胸中者相會하니 則先天後天混合而成在上之宗氣라 此氣充滿하면 則呵噓蒸被 而水道流行이라 今腎中鮮上熏之妙 而膈氣空淺하면 則水行自緩하고 緩則氣愈滯而不得溺라 不得溺하면 則膀胱滿而攙起胞胎하야라 令胞系松寬而微轉이라 故曰轉胞라”고 하여 轉胞의 形成過程을 仔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心典』은 下焦之氣가 腎主之니 腎氣得理면 庶繚者順이니 戾者平 而閉乃通耳니라”하여 轉胞의 發生이 腎氣의 機能異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述義』는 “按此條之證은 本是下焦壅滯하야 不得溺利者니 膀胱爲之急脹 而胞系遂至繚戾하고 溺隨益閉하야 以致煩熱不得臥 而反倚息이라”고 하여 轉胞가 小便不通 등으로 인한 下焦壅滯에서 비롯된 것이지 下元衰乏과는 반드시 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달리 解釋을 하였다.

『正義』는 “蓋尿道開於膀胱 而合辟之樞機司之於腎이라 腎虛氣不歸垣하니 膀胱之氣化失職 以致潰亂하니 充塞於任脈地面이라 胞之系任脈主之니라 其氣紊亂則胞系不能正而繚戾轉하야 迨至胞轉 而膀胱愈病可知矣니라”고 하여 轉胞의 發生 機轉을 說明하였고, 『辨解』는 “致膀胱之系了戾而不得小便하니 故用腎氣丸하야 以鼓動腎氣順舉之니라 俾返其正하면 小便自利而愈하니라”고 하여 轉胞의 發生이 腎氣의 弱화로 膀胱의 方位가 轉變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 轉胞之病의 病因病機에 대하여 『淺注』는 腎氣不化말고도 “中焦脾虛 不能散精歸於胞”, “上焦肺虛 不能下輸布於胞”, “胎重壓其胞” 또는 “忍溺入房” 등의 경우가 있으니 각각의 狀況에 따라 相應한 方藥을 投與하야 한다고 強調하였고, 『諸病源候論』은 “胞轉之病이 由胞爲熱所迫하니 或忍小便하야 俱令水氣還迫於胞하야 屈辟不得充張하야 外水應入不得入하고 內洩應出不得出하야 外內壅脹不通故로 爲胞轉이라 其狀小腹急痛하야 不得小便하니 甚者至死라”²⁶⁾

고 하여 熱趨膀胱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臨床에서 具體的으로 辨證하여 論治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²⁷⁾.

④ 但利小便則愈의 治療 原理

本條目에서 提示한 轉胞의 治療原則인 “但利小便則愈”에 대하여 『述義』는 “故用腎氣丸이라 開其壅滯하야 利其小便하면 則膀胱寬豁 而其系復舊也니라 此證不必下元衰乏 而其用此丸者니라 專取之利水니 故云但利小便則愈니라”고 注釋하여 下元이 虛衰한 症狀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腎氣丸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고, 『心典』은 “治以腎氣者는 下焦之氣가 腎主之니 腎氣得理면 庶繚者順이니 戾者平 而閉乃通耳니라”고 하여 腎氣丸을 써서 腎氣를 다스리는 目的은 單純히 補益의 意圖가 아니라 小便을 이롭게 하여 膀胱 胞系를 바로 잡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다.

『正義』는 “欲正胞系어든 必先利膀胱하고 欲利膀胱이어든 必先振腎氣니 一定之法也니라”고 하여 腎氣를 크게 強化하는 것은 바로 膀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辨解』는 “用腎氣丸하야 以鼓動腎氣順舉之니라 俾返其正하면 小便自利而愈하니라”고 하여 腎氣를 鼓動하여 膀胱을 들어주어 제자리에 잡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腎氣丸을 投與하는 意味에 대해 多角的으로 說明해 주고 있다.

(3) 腎氣丸의 轉胞不得溺의 治療原理에 대한 各家 注의 考察

腎氣丸으로 轉胞不得溺를 治療하는 原理에 관하여 『正義』는 “欲正胞系어든 必先利膀胱하고 欲利膀胱이어든 必先振腎氣니 一定之法也니라 腎氣丸은 補元陽而益真陰하야 使樞臟有權하니 膀胱之氣自化하고 任脈自安而胞系自正也니라”고 하여 腎氣丸이 補元陽하고 益真陰하여 腎氣를 크게 떨침으로써 胞系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辨解』도 “用腎氣丸하야 以鼓動腎氣順舉之니라 俾返其正하면 小便自利而愈하니라”고 하여 腎氣丸으로 腎氣를 鼓動

26) 巢元方原著, 丁光迪主編,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1154~1155.

27) 李克光 張家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685.

하여膀胱을順學할 수 있기 때문에胞系가 바로잡혀小便不利의 症狀이 사라진다고 하였으며, 『本義』 또한 “以補腎氣爲利小便之法 猶之補膀胱氣化不足之治 而又專補在背氣하니 俾氣足而胞正 胞正而系正 小便不利可利矣라 不知者 漫用利水清熱 腎氣大泄 氣愈虛而尿愈不利 少腹脹痛 氣逆上沖 證變危迫 皆不會轉胞之理者也라 師明之 示人切哉아”라고 하여 역시 腎氣를 補하는 것을 통하여膀胱이 바른 位置로 回復되고 胞系 또한 歸正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說明하였다.

또한 『淺注』는 “治以此方으로 補腎則氣化하고 氣化則水行而愈矣니라”고 하고, 『心典』은 “治以腎氣者 是下焦之氣가 腎主之니 腎氣得理면 庶繚者順이니 戾者平 而閉乃通耳니라”고 하여 모두 腎氣를 補하여 正常이 되면 小便不利와 轉胞가 모두 解決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金鑑』은 “主之腎氣丸이니 以溫行下焦陽氣하야 陽氣化則尿出하고 諸病自解矣니라”고 하여 腎氣丸을 쓰는 것은 下焦陽氣를 溫行하는 것을 통하여 小便不利와 轉胞를 解消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張注』는 “是宜腎氣丸하야 和下焦之水火하니 先天和而後天之水火도 亦和矣니라 先天之火는 腎與命門也니라 後天之水火는 手足少陰也니라”고 하여 腎氣丸이 下焦의 水火를 調和시켜 先天의 水火인 腎與命門과 後天의 水火인 手足少陰이 서로 調和되게끔 함으로써 諸症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4) 腎氣丸의 處方構成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의 處方 構成의 原理에 대해 『廣注』는 “方名 腎氣丸者는 氣屬陽하야 補腎中眞陽之氣也니라 內具 六味丸하야 壯腎水以滋小便之源하고(茯苓澤瀉는 俱利小便藥이고) 桂附는 益命門火하야 以化膀胱之氣니 則熏蒸津液 水道以通 而小便自利라 此所以不用五苓散 而用腎氣丸也니라”고 하여 腎氣丸의 여덟 味의 藥物에서 乾地黃, 薯蕷, 山茱萸, 澤瀉, 茯苓, 牡丹皮은 자연스럽게 六味丸을 이루어 腎水를 滋補하는데 茯苓과 澤瀉는 특히 利小便하는 作用이 있으며 桂枝와 附子는 命門의 火를 補益하고 膀胱의 氣化를 促進시키는 作用이 있어 마침내 津液을 熏蒸되고 水道가 通하게 됨으로써 小便이 스스로 이롭게 되는 治療效

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張仲景이 本 病證에 대하여 五苓散을 쓰지 않고 腎氣丸을 提示한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또 『懸解』는 “腎氣丸은 苓澤은 瀉水而燥濕하고 丹桂는 疏木而達鬱하고 地黃은 清風而潤燥하고 附子는 暖腎而消痰하고 山茱萸는 斂肝氣而攝水也니라”고 하여 腎氣丸의 각 藥物의 作用을 보다 仔細하게 說明하였고, 『高注』는 “腎氣丸中에 茯苓은 滲泄以利水라 山藥은 培土以利水 則膀胱淺軟 而胞胎已有下弛之地라 且得地黃 山萸는 將桂附彈壓하야 下入肝腎 而令丹皮로 直從貼脊而上引之하야 俾胸中氤氳之氣下逼하니 則胞胎復安其位 而其系因直而自正이라 又何煩熱不得臥 及倚息之患耶니라 此仲景不以他藥利水 而獨主腎氣丸之精意니 安得有心人 而與之共剔長沙之燈火哉인저”라고 하여 腎氣丸의 각 藥物의 作用을 통하여 結果의으로 膀胱의 胞系가 바로 잡히는 效果를 圖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張仲景이 本 病證에 대해 기타 利水劑를 提示하지 않고 오직 腎氣丸만을 言及한 깊은 뜻이 있다고 強調하였다.

2) 「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²⁸⁾

(1) 原文

虛勞에 腰痛하고 少腹拘急하고 小便不利者는 八味 腎氣丸으로 主之라(方見婦人雜病中) ²⁹⁾ (第15條)

28) 王學淦,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4. pp.92~97.(原文과 관련된 參考文獻은 王學淦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29) 方見婦人雜病中: 「婦人雜病脈證并治篇」 또는 「血痺虛勞病脈證并治篇」 등 腎氣丸이 言及되는 原文 條目 끝을 보면 版本에 따라 “方見虛勞中”, “方見婦人雜病中”, “方見腳氣中”, “方見中風中” 등 서로 다른 注文이 있다. 「血痺虛勞病脈證并治篇」에서 『醫統』本에 근거하여 ‘方見婦人雜病中’으로 校監한다”고 밝혔고, 『金匱要略譯釋』은 “宋·林億 등이 證次하고 明·趙開美가 校刻한 『金匱要略方論』을 底本으로 삼아 ‘方見腳氣中’이라 한다고 하면서, 『醫統』本에는 “方見婦人雜病中”이라 하여 處方을 收錄하였는데 이 處方을 本篇으로 옮겼다”고 說明하였으며, 「婦人雜病脈證并治篇」에서 『醫統』本은 “方見虛勞中”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여러 文獻을 살펴보면 “方見婦人雜病中”으로 한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5; 李克光, 張家

(原文解釋)

虛勞에 腰痛이 있고 少腹拘急하고 小便不利한 境遇에는 八味腎氣丸으로 治療하여야 한다.

(2) 病症의 病因病機에 대한 各家注 考察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의 發生機轉에 관하여 『心典』은 “虛勞之人은 損傷少陰腎氣하니 是以로 腰痛하고 少腹拘急하고 小便不利라 程氏所謂腎間動氣가 已損者가 是矣라”고 하여 이것이 少陰腎氣의 損傷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少陰腎氣는 바로 腎間動氣라고 하였고, 『淺注』는 “虛勞에 腰痛은 爲腎氣虛而不行이라 小腹痛拘急하고 小便不利者는 爲膀胱之氣가 虛而不化니라 … 金匱에 於虛勞証에 窮到陰陽之總根하여 而歸之於腎하되 曰腰痛 曰小腹痛拘急 曰小便不利라”고 하고, 『張注』는 “腰者는 腎之府이니 腎氣虛라 故로 腰痛이라 精氣寒이라 故로 少腹拘急이라 氣虛不化라 故로 小便不利也라”고 하여 모두 腎氣虛가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論注』는 “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이 皆腎家の證이라 然이나 非失精等現證비니 乃腎虛而痺라”고 하여 그 病因病機가 그냥 腎虛에 있다고만 하였고, 『發微』는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은 此는 腎陽不充之證也라 腎臟虛寒 則水濕不能化氣하여 膨急於上 則腰痛하고 膨急於下則少腹拘急이라”고 하고, 『廣義』는 “虛勞에 至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하니 其腎陽之虛가 已極이니 卽上條失精家之見證也라”고 하여 腎陽虛로 보았으며, 『本義』는 “此는 下焦無陽之見證이라 … 虛勞에 腰痛하고 少腹拘急하고 小便不利는 純是 腎中水火俱不足之證也라 失精之故顯然矣라”고 하여 이것이 腎中水火가 모두 不足한 病證에 屬한다고 主張하였다.

또 『廣注』는 “此는 虛勞病之在腎經者也라 腰者는 腎之府이니 腎脈이 絡膀胱하니 少腹은 其部分也라 腎主二便하니 開竅於二陰하니 小便은 其所司也라 腰痛 少腹拘急者는 腎氣虛也라 小便不利者는 腎虛液竭하여 膀胱氣不化也라 腎與膀胱은 爲表裏이니 經에

云 膀胱者는 津液藏焉이니 氣化則能出矣라”고 하여 腎氣虛가 發生하여 腎의 經絡에 影響이 미쳐 腰痛과 少腹拘急이 나타나고, 腎이 膀胱과 表裏關係가 있기에 膀胱氣化機能에까지 影響이 미쳐 小便不利가 나타난 것이라고 解釋하였다.

이 외에 『懸解』는 “腰者는 水位也니 水寒不能生木 則木陷於水 而腰痛作이라 木鬱風生하여 不能上達 則橫塞少腹하고 枯槁而拘急이라 乙木鬱陷하여 緣於土濕하여 木濕於濕土之中하면 疏泄之令이 不暢이라 故로 小便不利라”고 하여 水·木의 五行相生과 土·木의 五行相侮關係로서 說明하였는데, 腎水之寒으로 木을 生하지 못하여 木陷於水하여 腰痛이 나타나고, 木鬱生風하여 不能上達함으로써 少腹拘急이 나타나며, 土濕이 지나치게 強하여 木의 疏泄機能이 弱化되어 小便不利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3) 腎氣丸의 虛勞腰痛의 治療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으로 虛勞腰痛을 治療하는 原理에 관하여 『淺注』는 “以八味腎氣丸主之라 此는 補言下焦之証治也라 八味腎氣丸은 爲溫腎氣化之良方이라”고 하여 腎氣를 溫補하는 效能을 強調하였다.

『廣注』는 “主八味丸으로 以補腎虛라 夫腎爲水臟이요 而命門屬火하니 以溫養腎水하니 … 今用六味丸하여 補水 則陰虛內熱之症熄矣라 所謂壯水之主하여 以制陽光是也라 … 又加桂附하여 補命門相火하여 以去沉寒虛怯之患이니 所謂益火之源하여 以消陰翳是也라”고 하여 腎氣丸이 腎虛를 補하는 機能이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處方 內에 포함된 六味丸으로 腎水를 보하여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治療目的을 이루고, 桂枝와 附子로 命門相火를 補하여 “益火之源 以消陰翳”의 治療目的을 이룬다고 하였고, 『論注』도 “故로 以六味丸補其腎하고 仍須以桂附壯其元陽也라”고 하여 補其 腎水하고 壯其元陽하는 治法을 쓰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또 『本義』는 “以六味丸으로 壯水之本하고 加桂附하여 益火之源하니 水火兼理於腎이라”고 하여 위의 注家와 같은 解釋을 한 基礎위에 또 “仲景이 出建中湯하여 爲自上而損脫氣者主治也라 其有自下而損失精

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60; 李彰.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00.)

者는 則又立一法主之니 爲八味腎氣丸이라 … 凡上無熱而下虛者는 建中湯爲宜요 上有熱而下虛者는 八味腎氣丸爲宜也라”고 하여 建中湯과 腎氣丸의 治法을 比較하여 說明하였는데, 즉 虛勞病에서 “自上而損脫氣者” 특히 “上無熱而下虛者”는 小建中湯이나 黃芪健中湯으로 다스려야 마땅하고, “自下而損失精者” 특히 “上有熱而下虛者”는 腎氣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한층 더 깊이 說明하였다. 이와 같은 治法은 『難經·十四難』의 “至脈은 從下上하고 損脈은 從上下也라”³⁰⁾고 한 虛損病의 至脈과 損脈의 理論에서 起源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心典』은 “八味腎氣丸은 補陰之虛하야 可以生氣하고 助陽之弱하야 可以化水하니 乃補下治下之良劑也라”고 하고, 『廣義』는 “用八味腎氣丸하야 補陰之虛하야 可以生氣하고 助陽之弱하야 可以化水하니 亦卽溫腎必佐涼肝之法也라”고 하여 腎氣丸으로 補腎陰之虛하고 助腎陽之弱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輯義』는 “薛氏醫案에 云 八味丸은 治命門火衰하야 不能生土하야 以致脾胃虛寒하야 而患流注鶴膝等症하고 不能消潰收斂하고 或飲食少思하고 或食而不化하고 或臍腹疼痛하고 夜多漩溺라 經에 云 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라하니 卽此方也라”고 하고, 또 “吳氏方考에 云 今人入房盛에 而陽事愈舉者는 陰虛火動也라 陽事先萎者는 命門火衰也니 是方은 於六味中에 加桂附하야 以益命門之火하야 使作強之官得其職矣라”고 하여 腎氣丸이 주로 命門火衰를 다스리는 處方으로 그 效能이 “益火之源 以消陰翳”에 置重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薛氏云 … 此藥爲天一生水之劑라 … 凡諸虛不足之症에 皆用此以滋化源이니 其功不能盡述이라”고 하여 腎氣丸이 天一生水하는 處方으로 여러 虛損病證에 모두 適用되어 그 效能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고 評價하였다.

또 『張注』는 “此는 論精陽之原이 本虛弱者는 宜八味腎氣丸으로 主之라 … 是以로 腎者는 精之處也요 命門은 爲生氣之原이라 … 此는 補益先天眞水眞火之聖劑也라”고 하여 腎氣丸이 先天의 眞水와 眞火를

함께 補益하는 聖劑라고 釋하였고, 『淺注』는 “八味腎氣丸은 爲溫腎氣化之良方이니 若小便多者는 大爲禁劑라”고 하여 腎氣丸에 禁忌症이 있어 虛勞에 小便量이 많은 患者에게는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 外에 腎氣丸으로 虛勞腰痛을 治療하는 治法에 對해 異議를 提起하면서 天雄散을 쓰는 것이 보다 妥當하다고 主張한 醫家들도 있다.

그 中 『淺注』는 “金匱에 於桂枝龍骨牡蠣湯後에 突出天雄散一方하야 與前後文不相連貫하고 論中并無一言及之하야 以致各注家疑爲後人所附하고 而不知此方絶大議論이라 方中에 白朮爲補脾聖藥이니 最得土旺生金하야 水源不竭하니 納穀者昌하고 精生於穀之義라 且又得桂枝化太陽之水腑하고 天雄溫少陰之水臟하니 水哉水哉인저 其體가 本靜 而川流不息者는 氣之動이요 火之用也라 更佐以龍骨者는 蓋以龍屬陽하고 而宅於水하니 同氣相求하야 可以斂納散漫之火而歸根하야 以成陰陽平秘之道라 金匱에 於虛勞證에 窮到陰陽之總根하야 而歸之於腎하되 曰腰痛 曰小腹拘急 曰小便不利 略拈數証하야 以爲一隅之舉하니 恐八味腎氣丸之力量不及하야 又立此方하니 誠爲煉石補天手段이라 其証治方旨는 俱未發明者는 則內經禁方之意니 重其道而不輕泄也歟아!”라고 하여 腎氣丸으로 腎虛腰痛에 小腹拘急 및 小便不利를 治療하는 힘이 弱하여 取效하기 어려운 경우를 對備하기 爲해 張仲景이 確立한 處方이 바로 天雄散이라고 主張하면서 天雄散에 對한 깊은 意味를 強調하였다.

또 『發微』는 이에 對하여 “此證은 仲師가 主以崔氏八味丸이라 然이나 予曾用之하니 絶然不應니 乃知陳修園이 易以天雄散로 爲不刊之論이라 原腎臟所以虛寒者 則以腎陽不藏之故로 腎陽不藏 則三焦水道得溫而氣反升하고 水欲下泄하야 虛陽吸之하니 此水道所以不通也라 方用龍骨 天雄하야 以收散亡之陽하고 白朮로 補中하야 以制逆行之水하고 桂枝로 通陽하야 以破陰霾之塞이라 於是에 天晴雲散하야 水歸其壑矣라”고 하여 自身은 腎氣丸으로 虛勞腰痛을 治療해 보았으나 效果를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天雄散으로 治療하는 것이 훨씬 妥當한 것이라고 力說하였다.

30)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360.

(4) 腎氣丸의 處方構成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의 處方 構成의 原理에 대해 『廣注』는 “今用六味丸하야 補水하야 則陰虛內熱之症熄矣라 所謂壯水之主하야 以制陽光是也라 蓋以熟地補腎爲主하고 山茱萸補肝佐之하니 此癸乙同歸一治요 而腰痛少腹拘急이 可愈矣라 山藥은 補脾하니 防水氣之泛溢이라 丹皮는 去相火하고 茯苓 澤瀉는 利水하야 以瀉腎邪則小便自利矣라 又加桂附하야 補命門相火하야 以去沉寒虛怯之患이니 所謂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是也라 沈子華曰: 今醫見小便不利면 卽用清涼藥하야 瀉內熱矣하니 安知水火既濟者는 以資化源而小便自利乎아 此八味丸이 爲治天一生水之聖劑也라”고 하여 여덟 가지 藥味의 각각의 藥理作用과 각각 解消하는 病症 들을 하나하나 詳細하게 闡發하였다.

『張注』는 “地黃은 色玄汁厚하야 主補天乙之水하고 附子는 氣雄性熱하야 能益眞火之源하고 茯苓 澤瀉는 行精液以下藏하고 肉桂 丹皮는 助元陽而上達하고 山藥은 補中焦津液之所生하고 茱萸는 固下焦精陽之漏泄하니 此는 補益先天眞水眞火之聖劑也라”고 하여 여덟 가지 藥이 協力함으로써 先天의 眞水와 眞火를 補益하는 뛰어난 效果를 이룬다고 하였다.

『懸解』는 “附子로 溫癸水而益腎氣하고 地黃으로 滋乙木而補肝血하고 丹皮로 行血而開瘀하고 薯蕷로 斂精而止亡하고 苓澤으로 瀉水而滲濕하고 桂枝로 疏木而達鬱也라”고 하여 五行의 이치로 腎氣丸의 藥物 構成을 說明하였다.

『廣義』는 “用八味腎氣丸하야 補陰之虛하야 可以生氣하고 助陽之弱하야 可以化水하니 亦卽溫腎必佐涼肝之法也라”고 하여 溫腎之陽함에 반드시 涼肝法을 兼해야 하기에 腎氣丸의 構成에 乾地黃이나 牧丹皮와 같은 涼肝藥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論注』는 “以六味丸補其腎하고 仍須以桂附壯其元陽也라”고 하여 處方 중에 包含된 六味丸은 補其腎水하고 桂枝와 附子를 함께 함으로써 壯其元陽하는 功效를 이룬다고 하였고, 『本義』는 “以六味丸으로 壯水之本하고 加桂附하야 益火之源하니 水火兼理於腎이라 凡上無熱而下虛者는 建中湯爲宜요 上有熱而下虛者는 八味腎氣丸爲宜也라”고 하여 腎氣丸이 上熱과 下虛를 同時에 다스리는 作用이 있다고 說明하였

으며, 『輯義』는 “吳氏方考에 云 今人入房盛에 而陽事愈學者는 陰虛火動也라 陽事先萎者는 命門火衰也니 是方은 於六味中에 加桂附하야 以益命門之火하야 使作強之官得其職矣라”고 하여 六味丸에 桂枝와 附子가 들어감으로써 命門之火를 이롭게 하는 效能이 나타나고, 나아가서 腎의 作強之官의 機能을 回復시키는 藥效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痰飲咳嗽病脈証並治第十二」³¹⁾

(1) 原文

夫短氣有微飲하면 當從小便去之니 苓桂朮甘湯主之라 (方見上이라) 腎氣丸亦主之라 (方見婦人雜病中이라) (第17條)

(原文解釋)

短氣하면서 微飲이 있으면 마땅히 小便을 통하여 除去하여야 하니 苓桂朮甘湯을 使用하여야 한다. 또한 腎氣丸으로도 治療한다.

(2) 病症의 病因病機와 治法에 대한 各家注 考察

張仲景은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証並治第十二』의 第15條目에서 痰飲의 治療는 “病痰飲者 當以溫藥和之”를 根本大法로 삼는다고 指摘하였고, 이어서 第17條目에서 “무릇 숨이 가쁘고 微量의 飲邪가 停滯되어 있는 것은 마땅히 小便으로 빼내야 하니 苓桂朮甘湯을 써서 治療하며 또한 腎氣丸을 써서 治療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提示한 苓桂朮甘湯과 腎氣丸 두 處方은 모두 溫藥에 속한 것이다.

本條目에 대해서 短氣의 發生機轉, 微飲의 形成機轉, 當從小便去之해야 하는 原理, 苓桂朮甘湯과 腎氣丸을 區別하여 쓰는 基準이라는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各家의 注釋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① 短氣의 發生機轉

本條目에서 論하고 있는 短氣의 病症에 관하여 『廣義』는 “今短氣가 爲有微飲이오 其氣之短이 爲因微飲이니 非虛也라 其飲爲病은 尚在初微니 非甚也라 但飲邪停留하야 阻礙呼吸 而息爲之不長也라”고 하고,

31) 柳濟求,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証並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98~105.(原文과 관련된 參考文獻은 柳濟求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金鑑』은 “氣虛短氣는 是氣少不能長息而短也 微飲短氣는 是水停阻礙呼吸而短也니라”고 하여 이것이 虛證에 속한 短氣가 아니고 약간의 飲邪가 停滯되어 呼吸을 阻礙하기 때문에 發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飲邪가 短氣를 招來하는 具體的인 機轉에 관하여 『論注』는 “支飲留飲은 水在心하니 皆短氣니 總是水停心下라”고 하고, 『正義』는 “凡水停心下야야 短氣有微飲者라”고 하여 飲邪가 心下에 停滯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張注』는 “短氣有微飲者는 飲微而止在胸하니 有傷宗氣라 故短氣也니라 飲微하니 故不下及於脇 而支絡도 亦不滿也니라”고 하여 모두 飲邪가 胸中에 停滯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辨解』는 “今病短氣에 肺有微飲也라”고 하여 飲邪가 肺에 停滯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高注』는 “蓋腎有微飲하면 則其氣上射於肺 而見短氣之候하니 故短氣者는 即知有微飲也니라”고 하여 飲邪가 腎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懸解』는 “微飲阻隔하면 肺金不降하니 是以短氣니라”고 하고, 『廣注』는 “肺主氣하니 短氣有微飲이니 是肺氣虛滯야야 不能通調水道 下輸膀胱也니라”고 하고, 『二注』는 “微飲而短氣는 由水飲停蓄야야 致三焦之氣가 升降呼吸不前也니라”고 하고, 『心典』은 “氣爲飲抑則短하니라”고 하고, 『淺注』는 “飲而日微하니 非氣非水에 如陰霾四佈야야 阻塞升降之路하면 則爲短氣니 謂夫短氣之由는 皆由於有微飲이라”고 하고, 『補正』은 “此短氣는 尤屬水停不化라”고 하여, 하나같이 몸속에 飲邪가 停滯되어 呼吸의 異常을 불러일으켜 短氣가 發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飲邪는 補法으로 다스리지 않고 瀉法으로 除去해야 마땅한 것이다.

② 微飲의 形成 機轉

短氣를 일으키는 飲邪의 形成 機轉에 관하여서 『廣注』는 “水飲停積이 有二因하니 一因은 脾土衰야야 不能制水오 一因은 腎主水位오 爲胃之關이어늘 腎虛야야 關門不利야야 故積飲於中이니라”고 하여 脾虛와 腎虛에서 由來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하였다.

『正義』는 “以痰飲本乎陽虛니 果其中陽虛也면 則用苓桂朮甘法이니라 如屬下焦之眞陽虛也면 則宜腎氣丸

法이라 是又當以病氣爲權衡矣니라”라 하여 痰飲이 中焦陽虛에서 由來된 것과 下焦眞陽之虛에서 由來될 수가 있다고 하여 『廣注』와 같은 見解를 提示하였다.

또 『張注』는 “夫諸飲은 皆緣中焦氣虛야야 不能制化其水液야야 以致凝聚而爲痰이니라 然中焦之陽은 又生於下焦之精水라”고 하여 中焦氣虛가 主因이지만 이 中焦의 陽氣는 또 下焦의 腎臟 精水에서 緣由되는 것이기에 下焦의 腎精腎水 또한 크게 關係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發微』는 “仲師所出方治도 皆用苓桂朮甘湯者니 則以飲邪初起에 水氣僅在三焦而不及內臟하니 故但扶脾臟以通陽氣야야 使上焦氣散야야 無吸水之力而水道自通이오 水道通而飲邪去矣니라 但苦短氣之肺 飲도 亦主以腎氣丸者는 或病在寒水之臟야야 不能納氣니라”고 하여 飲邪가 처음 생겨 水氣가 다만 三焦에만 머물고 內臟에 미치지 않은 경우와 水氣 飲邪가 寒水之臟인 腎臟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短氣를 招來하는 飲邪의 病位와 病臟에 관하여서 여러 注家들이 『難經·四難』의 “呼出은 心與肺오 吸入은 肝與腎이라”³²⁾는 理論에 根據하여 呼吸의 特徵으로 區別의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즉 呼吸에서 吸氣 또는 呼氣 중 어떤 부분의 機能에 異常이 생겼는지가 短氣有微飲의 病位와 病機를 判斷하는 重要한 基準이 된다는 것인데, 呼氣가 짧은 短氣는 飲邪가 上焦, 膈下, 心下, 心肺에 있는 경우에 屬하고, 吸氣가 짧은 短氣는 飲邪가 下焦, 肝腎에 있는 경우에 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編注』는 “呼出心與肺오 吸入腎與肝이니 若心肺가 陽虛不運하고 微飲이 蓄於心下하면 呼氣不得歸源이오 … 蓋少陰은 爲樞로대 肝腎陽虛로 開闔失職하고 水飲이 下流於腎하면 阻抑吸氣하고 不歸於腎而短氣하니라”고 하였고, 『二注』는 “苓桂朮甘湯은 主飲在陽하니 呼氣之短이오 腎氣丸은 主飲在陰이니 吸氣之短이라 蓋呼者는 出心肺하고 吸者는 出腎肝이라”고 하였으며, 『辨解』는 “但短氣는 又必審其呼與吸之不同이라 呼氣之短은 乃是心肺之陽이 有礙하면 當以苓桂朮甘湯으로 通其陽하고 若爲吸

32)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75.

氣之短은 乃是肝腎之陰有礙니 當以腎氣丸으로 補腎行水하야 以疏其陰이라 內經曰 呼出은 為心與肺오 吸入은 為腎與肝이라”고 하였고, 『輯義』는 “案喻氏法律에 云 苓桂朮甘湯은 主飲在陽하니 呼氣之短이오 腎氣丸은 主飲在陰하니 吸氣之短이라 蓋呼者出心肺하고 吸者入腎肝하니 此說甚鑿矣니 蓋苓桂朮甘은 治胃陽不足하야 不能行水 而微飲停於心下以短氣오 腎氣丸은 治腎虛而不能收攝水하야 水泛於心下以短氣니 必察其人形體脈狀 而為施治니 一證二方에 各有所主오 其別은 蓋在於斯耶니라”고 하였으며, 『補正』은 “有飲者는 必短氣니 誠以水化則為氣오 水不化則氣不生하니 故呼出之氣短也니라 水停則阻氣하고 水不化則氣不降하니 故吸氣短也니라 經云 呼出은 心與肺오 吸入은 肝與腎이니 若心肺之陽이 虛則不能行水化氣니 用苓桂朮甘湯으로 振心陽하고 崇土以防禦之하야 使天陽明而陰霾散하면 則氣化行矣니라 若腎虛水泛하면 則吸引無權하니 當用腎氣丸하야 補腎行水하야 使腎氣足則能通府而化氣니 氣化則水道通矣니라”고 하였고, 『金鑑』은 “若呼之氣短하면 是心肺之陽이 有礙也니 … 吸之氣短은 是肝腎之陰이 有礙也니라”고 하였으며, 『淺注』는 “俞氏謂微飲이 阻礙呼吸而短氣하면 當辨之幾微니 若呼之氣短은 是心肺之陽이 有礙니 … 若吸之氣短하면 是肝腎之陰이 有礙니라”고 하였고, 『闕疑』는 “此는 言水之在下者니 短氣有二니 … 呼氣之短은 是心肺之陽阻라 故可通陽이오 吸氣之短은 是肝腎之陰阻라 故用通陰 利小便也라”고 하여 대개 類似한 意見을 提示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③ 苓桂朮甘湯과 腎氣丸을 區別하여 쓰는 基準

본 病證에 대하여 苓桂朮甘湯 또는 腎氣丸을 選用하는 問題는 飲邪를 招來하는 根本機轉을 根據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二注』는 “苓桂朮甘湯은 主飲在陽하니 呼氣之短이오 腎氣丸은 主飲在陰이니 吸氣之短이라”이라 하여 飲邪가 陽位에 있고 呼氣가 짧은 경우에는 苓桂朮甘湯으로 다스리고, 飲邪가 陰位에 있고 吸氣가 짧은 경우에는 腎氣丸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또 『廣注』는 水飲停積이 脾土衰로 인한 것은 苓桂朮甘湯으로 다스리고 腎虛로 인한 것은 腎氣丸으로 다스린다고 하였고, 『張注』는 中焦氣虛로 인한 것은

苓桂朮甘湯으로 다스리고 下焦精水의 損傷으로 인한 것은 腎氣丸으로 다스린다고 하였으며, 『補正』은 “若心肺之陽이 虛則不能行水化氣니 用苓桂朮甘湯으로 振心陽하고 崇土以防禦之하야 使天陽明而陰霾散하면 則氣化行矣니라 若腎虛水泛하면 則吸引無權하니 當用腎氣丸하야 補腎行水하야 使腎氣足則能通府而化氣니 氣化則水道通矣니라”고 하여 心肺의 陽虛로 인한 것은 苓桂朮甘湯으로 다스리고 腎虛水泛으로 인한 것은 腎氣丸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기타 注家들의 注釋도 이와 같거나 비슷하기에 省略하기로 한다.

④ 當從小便去之해야 하는 治療原理

본 條目에는 微量의 飲邪로 인한 短氣를 治療하는 根本原則으로 “當從小便去之”라고 提示하고 있다. 이 問題에 關하여 『辨解』는 “治病은 須因勢利導오 視其病之微甚하야 權其病之上下 而決其邪之出路焉 이라 今病短氣에 肺有微飲也라 飲為水氣니 當從三焦어늘 責之於膀胱氣化而泄之矣니라”고 하여 이 경우에는 飲邪가 몸에서 排出되는 徑路를 小便으로 設定하는 것이 가장 順理的이라고 說明하였고, 『心典』은 “氣爲飲抑則短하니 慾引其氣하야 必鑷其飲이니라 飲은 水類也니 治水는 必自小便去之라”고 하여 飲이 水類이므로 治水는 반드시 小便을 通하여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 『張注』는 “夫飲이 在支絡間者는 當從腸胃而解어늘 痰飲이 在氣分하니 故當從小便去之니라”고 하여 痰飲이 腸胃가 아닌 氣分에 있는 故로 마땅히 小便으로 除去해야 한다고 하였고, 『補正』은 “[補曰] 凡水飲은 皆當利小便이니 此短氣는 尤屬水停不化 亟當從小便而利去之也니라”고 하여 水飲은 대개 利小便하는 方法이 가장 妥當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懸解』는 “此緣土濕木鬱하야 不能泄水하니 當從小便하야 去其水飲이니라 飲去而土燥하면 則肺斂而氣降矣니라”고 하여 飲邪의 形成이 土濕木鬱에서 起源된 것이기에 利小便함으로써 水飲을 除去하면 土가 燥하게 되어 肺가 收斂하고 氣가 肅降하는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說明하였다.

그 외에 『高注』는 “此承上文苓桂朮甘湯 而補言腎中微有伏飲하야 以致上幹肺氣者니 亦主此湯也니라

蓋腎有微飲하면 則其氣上射於肺 而見短氣之候하니 故短氣者는 即知有微飲也니라 微飲即伏飲이니 以其在腎臟하니 故更當利其腑而從小便去也니라”고 하여 微飲이 腎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小便으로 除去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闕疑』는 “然亦有兩治니 呼氣之短은 是心肺之陽阻라 故可通陽이오 吸氣之短은 是肝腎之陰阻也라 故用通陰 利小便也라 亦當有少腹急 小便短少證이니라”고 하여 肝腎의 陰阻로 인한 短氣有微飲은 그 陰을 通하게 해야 하는데 바로 利小便의 方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고, 또 덧붙여서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兼證으로 少腹急, 小便短少의 症狀이 보여야 한다고 說明하였다.

(3) 苓桂朮甘湯과 腎氣丸으로 短氣有微飲을 治療하는 각각의 機轉

『廣注』는 “苓桂朮甘湯은 內有白朮 茯苓하야 補土以利小便하니 脾土旺 則飲自行하니 此治脾虛停飲之劑也니라 腎氣丸은 內有茯苓 澤瀉하야 補腎以利小便하니 關門通則飲自去니 此治腎虛停飲之劑也니라”고 하여 苓桂朮甘湯은 補土以利小便하는 作用이 있고 腎氣丸은 補腎以利小便하는 作用이 있다고 하였고, 또 “然肺主氣하니 短氣 有微飲이니 是肺氣虛滯하야 不能通調水道 下輸膀胱也니라 今補脾制水以利小便하면 則土旺生金而小便利矣니라 脾屬土 肺屬金하야 補腎壯水以利小便하면 則子能令母實 而肺氣亦利矣니라 腎屬水 是肺之子니라 夫脾胃兩補하면 肺氣旋通하니 有何微飲之不去乎아 此制方之妙義也니라”고 하여 苓桂朮甘湯으로 補脾制水以利小便하는 것은 土旺生金而小便利하는 方式으로 肺氣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子能令母實의 治法에 屬하고, 腎氣丸으로 補腎壯水以利小便하는 것은 子能令母實의 治法으로 肺氣를 이롭게 하는 方式이라고 說明하였다.

『本義』는 “是治痰飲以升胃陽이오 燥脾土가 爲第一義 而於命門加火도 又爲第一義之先務也니라”고 하여 苓桂朮甘湯은 痰飲을 다스림에 升胃陽 燥脾土하는 것에 뜻을 둔 것이고, 腎氣丸은 命門의 火를 補하는데 뜻을 둔 것이라고 하였고, 『心典』도 “苓桂朮甘은 益土氣以行水오 腎氣丸은 養陽氣以化陰하니 雖所主不同 而利小便은 則一也니라”고 하여 『本義』와 같은

意見을 提示하였으며, 『編注』는 “要知苓桂朮甘은 治脾虛水泛爲의이오 腎氣丸은 陰陽開闔有權이라야 乃治腎虛濕淫이니 此爲二大法門也니라”고 하고 『輯義』는 “案喻氏法律에 云 蓋苓桂朮甘은 治胃陽不足하야 不能行水 而微飲停於心下以短氣오 腎氣丸은 治腎虛而不能收攝水하야 水泛於心下以短氣니 必察其人之形體脈狀 而爲施治니 一證二方에 各有所主오 其別은 蓋在於斯耶니라”고 하여 서로 비슷한 見解를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張注』는 “苓桂朮甘湯은 從上而制泄於下也오 腎氣丸은 從下而宣承於上也니라”고 하고, 『高注』는 “該苓桂朮甘으로 溫上以禦下 而化機下被하니 故小便利어니와 腎氣丸은 溫下以蒸上 而化機亦下被하니 故小便亦利也니라”고 하여 두 處方에는 上과 下의 서로 다른 部位에 作用하여 同一한 症狀을 解消하는 이치가 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金鑑』은 “若呼之氣短하면 是心肺之陽이 有礙也니 用苓桂朮甘湯하야 以通其陽하고 陽氣通則膀胱之竅가 利矣니라 吸之氣短은 是肝腎之陰이 有礙也니 用腎氣丸하야 以通其陰하야 陰氣通하면 則小便之關이 開矣니라 故曰 苓桂朮甘湯主之 腎氣丸亦主之也니라”고 하였고, 『廣義』는 “苓桂朮甘湯主之니라 所以通其陽호대 陽氣通하면 則膀胱之竅利矣니 腎氣丸도 亦主之니라 所以通其陰호대 陰氣通하면 則小便之關開矣니라”고 하였으며, 『淺注』는 “宜苓桂朮甘湯하야 通其陽이오 陽氣通則膀胱之竅利矣니라 … 宜腎氣丸으로 通其陰이니 陰通則小便之關開矣니라”고 하였고, 『辨解』는 “當以苓桂朮甘湯으로 通其陽하고 若爲吸氣之短은 乃是肝腎之陰有礙니 當以腎氣丸으로 補腎行水하야 以疏其陰이라”고 하여 모두 苓桂朮甘湯은 中上焦의 陽을 通하게 하고 腎氣丸은 下焦의 陰을 通하게 하는 作用을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補正』은 “用苓桂朮甘湯으로 振心陽하고 崇土以防禦之하야 … 用腎氣丸하야 補腎行水하야 使腎氣足則能通府而化氣니 氣化則水道通矣니라”고 하였고, 『論注』는 “苓桂朮甘湯은 固能健胃下水니라 … 腎氣丸之力은 … 益眞陽以運動下焦陽氣하야 使腎之關門利而不壅하야니라”고 하기도 하였다.

(4) 腎氣丸의 處方構成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의 藥物 構成原理에 관하여 『輯義』는 “王叔和云 腎寒多唾하니 蓋腎爲水之官이오 腎能攝水하야 腎氣溫和하면 則水液運下하고 腎氣虛寒 則邪水上溢이니라 其間有山茱萸山藥輩는 取其補오 附子肉桂는 取其溫이오 茯苓澤瀉는 取其利니 理亦當矣니라”고 하여 山茱萸와 山藥은 補하는 역할을 하고, 附子和 桂枝(肉桂)는 溫腎氣하는 역할을 하며, 茯苓과 澤瀉는 利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本義』는 “仲景은 又主之以腎氣丸하니 以附桂로 入六味滋腎藥中하야 益火之源하야 以烘煖中焦之陽하야 使胃利於消而脾快於運하니 不治水而飲自無能留伏之患이니 是治痰飲以升胃陽이오 燥脾土가 爲第一義 而於命門加火도 又爲第一義之先務也니라”고 하여 附子和 桂枝를 腎水를 滋養하는 六味속에 攄으로써 益火之源하야 中焦를 따뜻하게 하는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論注』는 “今以地黃으로 養其眞陰하고 山茱로 益肝하고 苓藥으로 調脾니라 丹皮는 涼肝腎之氣하야 使相火로 自伏하고 澤瀉로 瀉膀胱以通腎氣하고 桂로 能化氣하고 附益眞陽以運動下焦陽氣하야 使腎之關門利而不壅하니 則脾氣自調러라 調則健運하니 古人所謂脾腎之氣通은 則三焦俱泰者가 此也니라”고 하였고, 『張注』는 “地黃은 主資天乙所生之精이오 桂附는 能壯眞火元陽之氣오 茯苓 山藥은 補益中焦之土오 牡丹皮는 啓發陰中之陽이니라 山茱萸는 味酸色赤하니 『本經』에 名曰蜀酸棗니 酸生木이니라 棗屬脾하니 蓋能通水中之生氣하고 壯木火之陽 而補益脾土니라 澤瀉는 能瀉水澤之下行이라 戊癸合化 而痰飲自行이니라”고 하였으며, 『二注』는 “茯苓은 入手太陰하고 桂枝는 入手少陰하니 皆輕清之劑니 治其陽也니라 地黃은 入足少陰하고 山藥는 入足厥陰하니 皆重濁之劑니 治其陰也니라”고 하였고, 『懸解』는 “苓桂朮甘湯은 朮 甘으로 補中而燥土하고 苓 桂로 瀉水而疏木이니 可以主之니라 腎氣丸은 丹 地 苓 澤으로 淸風而瀉濕하고 附 桂 茱 菴로 暖水而榮木이니 亦可以主之也니라”고 하여 위와 大同小異한 說明을 하고 있다.

4)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第十三」³³⁾

(1) 原文

男子 消渴에 小便反多하야 以飲一斗면 小便一斗면 腎氣丸으로 主之라 (方見婦人雜病中) (第3條)

(原文解釋)

만약 男子가 消渴病에 걸려 小量이 特히 많아 물을 한말 마실때 小便이 한말 나온다면 腎氣丸으로 治療하여야 한다.

(2) 病症의 病因病機에 대한 各家注 考察

① 男子를 強調한 問題에 관하여

本條目を 보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消渴病을 論하는데 첫 머리에 특별히 男子라고 더 強調하고 있다. 이는 男子가 屬陽하고 以腎爲事하기에 房勞過度로 腎의 精氣를 잘 消耗하여 이와 같은 病證이 보다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⁴⁾³⁵⁾. 이에 대한 各家의 注釋을 보면 『張注』는 “夫男子多煩勞而氣盛故로 曰男子라 勞則傷腎하고 腎傷則精絕矣라”고 하여 男子는 日常 勞作과 房勞로 腎精을 보다 傷하기 쉬운 生理特性이 있다고 하였고, 『二注』는 “腎者는 主水 主志 藏精以施化라 若惑女色以喪志면 則泄精無度하고 火扇不已니 所主之水和 所藏之精이 無幾라”고 하여 男子가 女色에 지나치게 빠지면 腎水와 腎精이 모두 消耗되기 쉽다고 하였다.

그리고 『心典』은 “男子는 以腎爲事니 腎中有氣하야 所以主氣化 行津液 而潤心肺者也라 此氣即虛면 則不能上至하고 氣不至 則水亦不至 而心肺失其潤矣라”고 하여 男子의 모든 生理 行爲는 모두 腎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腎氣가 虛해지면 水液代謝의 이상이 생기기 쉽다고 하였고, 『淺注』는 “此提出男子兩字는 是指房勞傷腎이오 爲下消立法은 而以腎氣丸爲主治也라”고 하여 男子의 房勞로 인한 腎氣損傷이 下消의 根本原因이 되기에 男子를 強調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辨

33) 河成龍, 『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21~31.(原文과 관련된 參考文獻은 河成龍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34) 李克光, 張家禮 등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389.

35)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35.

解』는 “曰男子者는 是指房勞傷腎하야 水虧火旺하야 以成消渴之證焉이라”고 하고 『輯義』는 “〔沈〕 男子二字는 是指房勞傷腎이니 火旺水虧 而成消渴者라”고 하여 모두 男子의 房勞過度가 消渴의 原因이 되기에 男子를 첫 머리에 言及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小便反多의 發生機轉

本 條目은 다음으로 小便反多의 症狀을 言及하였는데 그 특징은 “以飲一斗 小便一斗”이다.

이에 관하여 『心典』은 “按컨대 … 腎中有氣하야 所以主氣化 行津液 而潤心肺者也라 … 夫豈知飲入於胃에 非得腎中眞陽이면 焉能遊溢精氣하야 而上輸脾肺耶아 … 此不言水虛不能制火하고 而言火虛不能化水 則法之變而論之精也라 惟火不化水故로 飲一斗 水亦一斗오 不然이면 未有不爲火所消者矣라”라고 하여 腎氣, 腎中眞陽之氣, 腎火가 虛衰해지면 胃에 섭취된 水液이 氣化되지 않아 위로는 脾肺心을 潤澤할 수 없게 되고 아래로는 바로 膀胱으로 내려가 “以飲一斗 小便一斗”의 特異한 症狀을 招來하게 된다고 하였다.

『廣注』는 “王注謂 肺臟消燥하야 氣無所持是也라 蓋肺藏氣하니 肺無病則氣能管攝津液하야 而津液之精微者가 收養筋骨血脈하고 餘者爲洩이니와 肺病則津液無氣管攝하야 而精微亦隨洩下故로 飲一洩二하고 而洩如膏油오 其筋骨血脈이 無津液以養之 故로 形瘦焦乾也라 然肺病은 本於腎虛하고 腎虛則心寡於畏하야 妄行凌肺하야 而移寒與之肺면 得病消라”고 하여 本 症狀은 肺가 病들어 나타나고 그 肺病은 腎虛에 根源을 두고 있는데 腎虛하면 心無所制하여 心克肺가 되어 결국 肺의 病을 招來하게 되는 이치라고 하였다.

『懸解』는 “男子消渴 而小便反多者는 乙木善泄而癸水失藏也라 … 消渴者는 厥陰風木之病이니 厥陰은 水母而子火니 病則風木疏泄하야 火不根水하야 下寒而上熱이라 上熱則善渴 故로 飲水一斗하고 下寒則善洩 故로 小便一斗라 … 而木鬱風動之由는 全因土濕하고 土濕之由는 全以水寒하니 水寒者는 腎氣之敗也라”고 하여 本 症狀이 土濕木鬱과 火不歸根으로 下寒上熱를 招來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辨解』는 “以腎中無火하야 不能消水 則水直趨膀胱排出 故로 爲下消라”고 하여 小便量이 많아지는 것은 腎中無火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고, 『廣義』

는 “若男子腎陽虛弱하야 氣化不及하야 渴飲所入은 由三焦直注膀胱하야 不約而出 則小便反多하야 致成飲一洩一之下消證이라”고 하여 역시 腎陽의 虛弱을 主因으로 꼽았다.

또 『張注』는 “如勞傷則精絶하고 精絶則生氣不升이라 陽明陽盛之府니 不得陰氣以和之면 則陽氣獨盛하고 氣盛則洩數하니 是以로 飲一斗 則小便一斗라”고 하고, 『二注』는 “〔衍義〕 腎者는 主水 主志 藏精以施化라 若惑女色以喪志면 則泄精無度하고 火扇不已니 所主之水和 所藏之精이 無幾니 水無幾면 何以敵相火며 精無幾면 何以承君火오 二火烏得不熾而爲內熱惑蠱之疾耶아 二火熾則肺金傷하고 肺金傷則氣燥液竭하야 內外腠理가 因之乾澀而思飲也라 且腎乃胃之關이오 通調水道하니 肺病則水不復上歸下輸하고 腎病則不復關鍵하야 不能調布五經하니 豈不飲一斗而出一斗乎아”라고 하며, 『輯義』는 “〔程〕 今其人也라 攝養失宜하야 腎水衰竭하야 龍雷之火가 不安於下하고 但炎於上 而刑肺金이라 肺熱葉焦 則消渴引飲하고 其飲入於胃에 下無火化하고 直入膀胱 則飲一斗하고 溺亦一斗也니 此屬下消라”고 하여 모두 腎精과 腎水의 損傷이 症狀 發生의 根本原因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以飲一斗 小便一斗”의 飲一洩一하는 病症의 發生機轉

本 條目의 飲一洩一하는 特異 症狀에 관하여 『辨解』는 “惟下焦는 寒熱兼有니 以腎爲水火之臟故也라 今曰飲一洩一면 其無熱消耗者를 可知矣라”고 하여 몸에 熱이 없어 水液의 消耗가 없기에 마시는 만큼 小便이 나오는 것이라고 說明하였고, 『金鑑』도 “飲一洩一은 其中無熱消耗可知矣라”고 하여 같은 意見을 提示하였다.

④ “以飲一斗 小便一斗”의 飲一洩一하는 病症의 轉變과 預後

그 외에 飲一洩一의 病證의 轉變과 預後에 관하여 『心典』은 “馴至陽氣全消하야 有降無升하야 飲一洩二而死不治라”고 하고, 『淺注』는 “馴至有降無升하야 飲一洩二하야 久而小便不臭하고 反作甘氣는 此腎敗而土氣下泄也라 更有浮在溺面如脂者는 此腎敗而精不

禁也니 皆爲不治라”고 하여 病證이 심하게 진행되면 小便量이 배로 많아지는 飲一溲二의 症狀으로 進入하고 小便의 惡臭가 사라지고 단맛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腎敗에 속하고, 더 惡化되어 排出한 尿液 表面에 기름 같은 것이 떠 있게 되면 이는 腎敗로 精이 마구 漏泄되는 것으로, 이는 이미 腎氣丸의 主治範圍를 벗어난 것이고 기타 藥物로도 治療가 되지 않는 경우에 屬한다고 하였다.

(3) 腎氣丸의 男子消渴小便反多의 治療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으로 본 病證을 治療하는 原理에 관하여 『輯義』는 “〔程〕 腎中之氣는 猶水中之火니 地中之陽이 蒸其精微之氣하야 達於上焦 則雲升而雨降이라 上焦得得如霧露之漑면 肺金滋潤이오 得以水精四布 五經并行이던 斯無消渴之患이라”고 하고, 『補正』은 “〔補曰〕 腎氣丸은 於水中補火하니 正是化氣之法 故로 名曰腎氣니 知此氣化면 則知補腎止渴諸理矣라”고 하며, 『心典』은 “腎氣丸은 中有桂 附하니 所以斡旋腎中頽墮之氣하야 而使上行心肺之分 故로 名曰腎氣라 不然 則滋陰潤燥之品으로 同於飲水無濟면 但益下趨之勢而已라”고 하고, 『張注』는 “故로 直腎氣丸으로 補腎臟之精氣니 精益氣升 則胃府之津液이 生而消渴解矣라 此章은 論傷精而水液下泄之消渴이라”고 하여 모두 腎氣丸으로 이미 衰退한 腎氣의 機能을 살릴 수 있기에 治療가 된다고 하였다.

『懸解』는 “腎氣溫暖하야 木榮風靜 則癸水善藏而木不能泄이오 腎氣漸寒하야 木鬱風作 則乙木善泄而水不能藏이라”고 하여 한층 더 나아가서 腎氣가 充足하고 溫暖하면 水의 貯藏과 木의 疏泄이 조화를 이루어 본 消渴病이 낫게 된다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金鑑』은 “故로 與腎氣丸하야 從陰中溫養其陽하야 使腎陰攝水則不直趨下源하고 腎氣上蒸則能化生津液이니 何消渴之有耶리오”라고 하고, 『廣義』는 “宜腎氣丸主之라 從陰中溫養其陽하야 使腎陰攝水하야 不致直趨下源하고 腎氣上蒸하면 則能化生津液하야 而消渴已矣라”고 하며, 『正義』는 “腎氣丸으로 助火以利樞機하고 補眞陰以熄浮焰면 如是則陰平陽秘而消渴自己矣라”고 하고, 『辨解』는 “以腎氣丸者는

用桂附之熱하야 從陰中溫養其陽하야 俾腎陰攝水하야 不直下趨 則自不下消也라”고 하여 모두 腎氣丸이 腎陰 속에서 腎陽을 滋生·溫養하는 效能이 있기에 본 消渴病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그 외에 『本義』는 “主之以腎氣丸은 純就消渴本源 腎經爲治하야 俾水足於腎하고 火固於命門 則肝木得水而敷榮하야 免焚燔之患矣오 肺金無熱以耗液이니 更免乾燥之虞矣니 而消渴止矣라 此卽壯水之本와 益火之原을 兼施并濟者也라”고 하고, 『廣注』는 “王肯堂曰 六味丸은 壯水之主하야 以制陽光 則渴飲不思오 加桂附하야 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 則便溺有節也라 … 用腎氣丸하야 補腎救肺하야니라”고 하여 腎氣丸이 “壯水之主 以制陽光”과 “益火之源 以消陰翳”하는 治療作用을 同時에 갖추고 있기에 본 消渴病에 適合한 處方이라고 說明하였다.

(4) 腎氣丸의 處方構成原理에 대한 各家注의 考察

腎氣丸의 方義에 관하여 『廣注』는 “王肯堂曰 六味丸은 壯水之主하야 以制陽光 則渴飲不思오 加桂附하야 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 則便溺有節也라”고 하여 處方 中の 六味丸은 腎水를 補하여 壯水之主하야 以制陽光하는 作用이 있고 桂枝와 附子는 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하는 作用이 있어 合하여 小便의 排泄 異常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二注』는 “〔衍義〕 用八味丸하야 補腎之精이 救其本也라 不避桂附之熱이니 爲非辛이면 不能開腠理니 致五臟精하야 輸之於腎하야 與其施化四布以潤燥也라”고 하여 桂枝와 附子의 藥理機能에 대해 한층 더 追加하여 說明해 주었다.

『心典』은 “腎氣丸中에 有桂附하니 所以斡旋腎中頽墮之氣하야 而使上行心肺之分이라”고 하고, 『辨解』는 “以腎氣丸者는 用桂附之熱하야 從陰中溫養其陽하야 俾腎陰攝水하야 不直下趨 則自不下消也라”고 하여 桂枝와 附子의 作用을 다른 視覺에서 說明을 해 주었다.

그리고 『懸解』는 “腎氣丸에 附子 桂枝는 溫腎氣而 達木하고 山萸 薯蕷는 斂肝氣而攝水하고 茯苓 澤瀉는 滲己土而瀉濕하고 地黃 丹皮는 滋乙木而清風也라”고 하여 腎氣丸의 各 藥物들의 藥理作用을 仔細히 說明해 주었다.

Ⅲ. 結 論

『金匱要略』의 腎氣丸에 대하여 注釋書 中心으로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腎氣丸은 『金匱要略』에서 最初로 提示한 方劑로서 같은 處方에 腎氣丸, 八味腎氣丸, 崔氏八味丸의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 現存 『金匱要略』 版本에 보이는 崔氏八味丸條目은 後人들이 添附한 內容으로 張仲景이 著述한 『金匱要略』原書 內容과는 相關 없는 것으로 推測된다.
3. 崔氏八味丸의 名稱은 唐·崔知悌가 지은 이미 사라진 『崔氏纂要方十卷』에 記錄된 處方을 唐·王燾가 『外臺秘要·腳氣不隨門』에 收錄한 것에서 緣由된 것으로 推測된다.
4. 腎氣丸이라는 處方名과 具體的인 藥物의 構成 및 用量이 함께 나타난 것은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이 처음이기에, 腎氣丸이란 名稱은 八味腎氣丸과 崔氏八味丸보다 더 原始的인 處方名이라고 할 수 있다.
5. 腎氣丸의 腎氣에는 水中之火, 腎中之眞陽之氣, 含水之氣, 水交於火而化之氣, 命火蒸水而生之氣, 微有火性之腎氣 등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
6. 腎氣丸의 效能은 한마디로 “壯水之主하야 以制陽光하고 益火之源하야 以消陰翳한다”는 말로 要約할 수 있는데, 藥物 構成의 意圖는 窮極의 所以 益火之源에 焦點이 맞추어져 있다.
7. 腎氣丸은 “轉胞不得溺”,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短氣有微飲”, “消渴 小便反多” 그리고 “腳氣上入 少腹不仁” 등 病證들을 主治하는 作用이 있는데, 대개 腎氣의 虛衰가 前提가 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管華全, 樊巧玲. 淺述腎氣丸의 衍化. 遼寧中醫學院學報. 2003. 5(1), p.47.
2. 金達鎬 譯, 宋·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2002. pp.110~111.
3.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 68.
4.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86, 88, 105, 207, 235, 413, 414.
5. 唐·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491, 499~500.
6. 劉景源 點校, 宋·陳師文 等 撰.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159.
7. 宋·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8.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10, 275, 360.
9. 李克光 張家禮 等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60, 685.
10. 李克光 主編. 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50, 167, 332, 368, 618.
11. 李克光, 張家禮 等 編著. 金匱要略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37, 140, 160, 336, 388, 389, 684.
12. 李炘.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55~56, p.200.
13.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124, p.456.
14. 丁光迪, 張毅才, 曹鍾苓.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90, 569.

(학술지논문)

1. 金珠哲. 『金匱要略·婦人雜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117~122.
2. 柳濟求.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証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98~105.
3. 오로사, 金永學, 宋峰根, 李彥政. 八味地黃丸과 六味地黃丸의 效能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동 의병리학회지. 1996, 10(2). pp.12~17.
4. 王學淦.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4. pp.92~97.
5. 尹英珉.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4. pp.76~88.
6. 河成龍. 『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2005. pp.21~31.

